

특집 ③  
한국의 사례 ③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 신나는 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꾸러기·엄마사랑 열람실

김 주 아\*

안녕하세요? 성북정보도서관 꾸러기·엄마사랑 열람실입니다. 열람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지요? 어린이 눈 높이에 맞는 정다운 이름만큼 어린이만을 위한 아늑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부모님들과 함께 찾아온 어린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한답니다.

작년 2002년 3월 개관 이래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여 지난 겨울방학에는 하루 평균 300~400여명의 친구들이 방문하였고, 주말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500여명 이상 이용하였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1. 추천도서 코너

매달 1일과 15일, 열람실 담당 사서 2인이 각각 8권씩 추천도서를 전시합니다. 추천도서는 반드시 사서가 직접 읽은 책에 한해서 선정

되며, 간단한 서지사항, 작가소개, 서평 및 추천이유를 함께 전시합니다.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1년 분량(총192권)이 모이면, 작은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 2. 알찬 내용의 “어린이 여름 독서교실”

여름방학에는 성북구 내 4,5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독서교실을 갖습니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도서관 이용법 교육, 도서관 여행, 좋은 책 고르는 방법 교육, 동화 연극 만들기, 나도작가! 작은 책 만들기, 인근 문화 유적지 답사 및 답사기 쓰기, 독서퀴즈대회 “황금징을 울려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보다 도서관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독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성북정보도서관 꾸러기열람실 사서

### 3. (사서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독서회 “책꾸러기들”

2002년 여름독서교실을 수료한 어린이들 중, 20명을 선발 10개월간 독서회를 운영합니다. 매 주 수요일 14시~16시 두 시간동안 매달 다른 주제에 맞는 책을 함께 읽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며, 주제와 관련된 장소로 현장학습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과 신문박물관 견학을 다녀왔고, 천장산(도서관 뒷산) 탐험도 했으며,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문집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독서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다양한 주제의 여러 책들을 접할 수 있어 좋았고, 독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도서관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고 덧붙이더군요.

### 4.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책을 읽어야 해요.

도서관 어린이실마다 가장 골칫거리는 아마도 컴퓨터관리 일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와서 만화책 보고, 컴퓨터로 오락(게임, 채팅은 하면 안 된다고 백날 부르짖어도, 어린이들이 꼭 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지요)하고 돌아가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방법이 “책 읽고 검사 받기”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은 어린이는 “컴퓨터 사용 신청서”를 써서 내고, 책(만화책 제외)을 읽은 다음 책을 가지고 와서 사서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간단한 질문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감상을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는 내용 요약하여 말하는 연습이나, 감상을 말로 표현해 보는 연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서 입장에서는 어린이가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사서나 어린이나 모두에게 다소 번거로운 작업이 되지만, 이러한 기회로 책을 읽지 않던 어린이가 점점 책에 흥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때면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 5. 학부모를 위한 특별 행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흔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을 위한 좋은 행사들은 적지요.

그래서 성북정보도서관에서는 학부모 공개강좌 및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우리 아이는 1학년, 학교에 가요”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 6. 어린이 전자책 다량 보유

엄마사랑 열람실에는 “책 읽어 주는 컴퓨터, e-book”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유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초등학생용 CD-ROM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도감, 글짓기 공부, 영어 공부 외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에 관한 내용이나, 만화 등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 7. 성북구 유치원, 학원, 학교에 소문났어요!

알찬 견학 프로그램으로 2002년 한해에만 해도 43회에 걸쳐 1,558명의 어린이들이 본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e-book 관람, 도서관 여행, 도서관 이용교육, 자유열람 순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여행, 자유열람 또는 “숙제에 도움을 주는 정보검색법” 등으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성북구에 소문이 많이 나서 미리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견학이 어렵답니다.

### 8. 이외의 특별행사들

어린이 영화 상영, 연극 상영, 인형극 상영 등의 공연 뿐 만 아니라, 어린이가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꿈나무 만들기”, “어린이 신문고”도 있습니다.

꿈나무 만들기는 1월달에 올해의 소망, 장래 희망 등을 작은 나뭇잎 또는 과일 모양의 종이에 적어 꿈나무 판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꿈나무 판은 사서가 나무 기둥과 해님 등으로 꾸며 미리 만들어 두었지요. 어린이들이 다양한

꿈과 희망을 적어주었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구체적인 희망을 적었주었습니다. 유아의 경우는 ‘낙타’, ‘언니’, ‘벨’, ‘슈퍼맨’, ‘천사’, ‘야인’ 등 재미있는 장래희망도 많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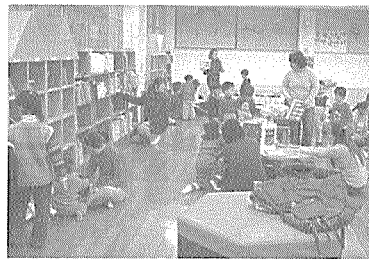
어린이 신문고는 도서관에 바라는 점, 하고 싶은 말 등을 자유롭게 적는 일종의 게시판입니다.

이 외에 Best 대출 도서 목록 전시, 어린이날 기념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재미거리로 가득한, 어린이들이 신나는, 앞서가는 도서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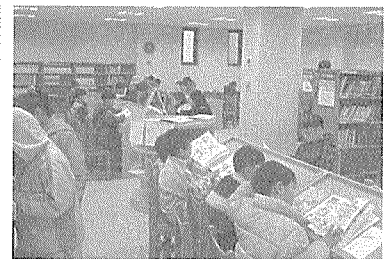
앞으로는 정기적인 독서퀴즈대회, 유아를 위한 이야기방 운영, 슬라이드 동화 상영 등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일들로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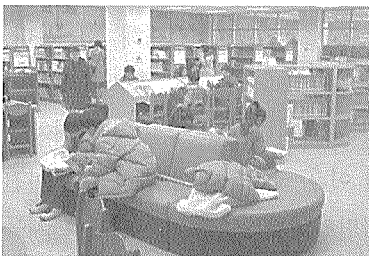
〈유아와 엄마들이 함께 이용하는  
엄마사랑 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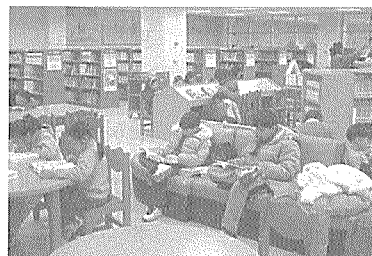
〈온돌마루로 되어있어  
온가족이 즐겁게 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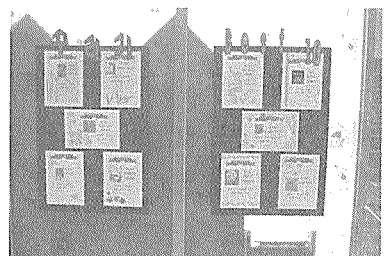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를 위한 꾸러기 열람실,  
중앙의 원형서가에 추천도서를 비치〉



〈자유로운 자세로 독서에 열중하는 어린이들〉



〈공룡책에 꼭 빠져있는 어린이.  
에야~~침떨어질라~~〉



〈2002년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10권의 도서 전시〉